

'익산형 사회보장 계획' 수립

제5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익산시는 앞으로 4년간의 익산형 사회보장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계획수립 TF위원, 복지분야 관계자 및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개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 의무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목

표 수립에 대한 중간보고, 중점 추진 사업 도출 등 관련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민·관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후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정책적 검토를 통해 최종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5기 계획(안)은 사회보장영역(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돌봄, 보건의 안전 등)에서 정부의 보편사업을 보완할 익산형 자체사업 중심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보장조사자료 및 전문가 의견, 민선 8기 시

정방향을 토대로 크게 △익산 대도약을 위한 희망 청년 △지역사회에서 키우는 꿈과 미래 △츄츄츄 사회안전망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돌봄 △일상에 힘이 되는 건강과 안전으로 5개 분야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에 설정된 35개 개별사업을 소개했다.

앞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 의견수렴, 완료보고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의회보고를 통해 9월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 맞춤형 시민복지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시민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금강 용안생태습지에 6천여 제곱미터 규모 15만 송이의 해바라기와 백일홍 꽃이 만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만송이 여름꽃 만개

익산시, 금강 용안생태습지 6천여 제곱미터

익산시 금강 용안생태습지에 6천여 제곱미터 규모 15만 송이의 해바라기와 백일홍 꽃이 만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용안생태습지에는 해바라기와 백일홍이 이달 중순부터 개화를 시작했다. 금강과 어우러진 드넓은 습지를 노랗게 물들이는 수만송이의 해바라기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뜨거운 여름에 화려한 색깔을 뽐내는 백일홍은 나뭇잎 여름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또한 수련 연못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련과 연꽃이 있어 방문객들이 무더운 여름 잠깐의 휴식을 얻을 수 있다.

여름 꽃밭으로 화사해진 용안생태습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탁 트인 자연관광 명소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여름 꽃밭을 도보는 물론 자전거 여행까지 즐길 수 있어 사계절 생태계의 변화를 느끼는 힐링 여행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시는 용안생태습지에 봄·여름·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도록 꽃밭을 조성해 명소화해 나가고 있다. 올 봄 1만 5천여 제곱미터의 유채꽃이 관람객들에게 사랑을 받은 데 이어 5월부터 정성 들여 가꾼 여름꽃이 이제 활짝 피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절에 맞춘 다양한 꽃밭을 조성해 용안생태습지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Run Your Ideas 2022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개최

군산시, 미래 자동차 공학인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022년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가 오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새만금 자동차 경주장 및 GSCO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 최대의 대학생 행사로 미래 자동차공학인으로서 육성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최하고 군산시, 국내 자동차 업체와 부품업체, 유관기관 등이 후원한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3만18,000여명이 넘는 개인회원과 국내 완성차 5개사, 700여개 기업 및 연구소가 법인회원으로 등록된 한국의 자동차 공학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대학생 자작자

차대회 및 자동차기술 정책포럼 등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첫 대회를 시작한 이후 올해 16회째를 맞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 13년간 군산에서 계속 개최되고 있다.

경기 대회는 Baja(OFF ROAD), Formula(ON ROAD), 기술아이디어 부문으로 진행된다.

시는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위해 오프로드 구간에 해마다 새로운 장애물을 조성하고 전국 대학생 마니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대회 개최를 통해 전국 우수 공학도들에게 자동차공학 기술 습득 기회 제공으로 우수인재 발굴하여 인재 채용의 기회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으며, 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규모를 축소 진행하여 아쉬웠다.

다행히 올해는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121개팀 23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행사를 본격 추진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대 자작자동차대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끔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농기센터, 고품질쌀 생산 위해 벼 이삭거름 적기 시용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군산 쌀 안정생산에 위해 벼 이삭거름의 적기·적량시용을 당부했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이삭거름은 벼 이삭이 출기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무렵에 수량확보 효과를 보기 위한 웃거름으로 일반품종의 경우 이삭이 나오기(출수기) 25일전후, 신통진벼는 이삭나오기 18일 전후에 주는 것이 적당하다.

특히 올해 모내기를 마친 이후 벼 생육기간 동안 일조시간이 전년 대비 76시간 적었고 적산온도는 76.4도 정도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시 대표 품종인 신통진벼의 경우 지난 5월 25일 이앙기준, 오는 8월 17일 경에 이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신통

진벼 이삭거름은 오는 30부터 8월 1 일경에 주는 것이 적기로 판단했다.

벼 이삭거름 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등숙불량 및 도복에 약하고 늦어지면 목도열병 또는 이삭도열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도복 수량, 미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기시용이 중요하다.

비료주는 양은 시에서 공급하는 맞춤형비료 기준으로 10a당 15kg 내외로 과다 시비가 되지 않도록 사용하며, 밑거름 사용량이 많아 잎색이 짙은 눈은 표준시비보다 일주일 정도 늦추어 주고 연화기리만 10a당 3~4kg를 시비하며, 완효성 비료를 사용한 눈은 이삭거름을 생략해도 된다.

또 이삭나오기(출수기)전 25일부터

이삭낸 후 10일까지는 벼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논물을 2~4cm 깊이로 걸러대기를 실시하여 뿌리의 활력을 높여 주어야 하며, 잦은 강우로 벼가 웃지러거나 약해져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흑명나방, 이화명나방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수 전에 적용약제로 종합방제를 해야 한다.

신통우 기술보급과장은 "작년 도열병으로 인해 수량피해가 컸으며, 올해 또한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비료가 과다할수록 벼가 연약해져 각종 병해충에 취약해질 수 있으니, 고품질 군산쌀 생산을 위해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시민 체감형 적극행정 주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시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민 체감형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2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법 규정에 의존하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기존 소극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창의력과 자율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합목적성 감사 도입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이는 징계가 목적이 아닌 공무원 조직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기 위한 과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 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합목적성 감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익 위주의 감사,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 도입, 적극행정 지원 등이 담긴 추진 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모든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라는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우선 참여하도록 하되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시는 지역업체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 생산물품과 업체를 분기별로 조사해 전 부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물품 우선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다이어وم 모바일 이벤트 지동응모 개최

익산시가 지역상품권 실물카드 없이 결제하고 가맹점은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익산사랑상품권, 다이어움 모바일 QR결제' 활성화에 나섰다.

모바일 QR결제는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가맹점에서 제시하는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는 편리하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모두에게 '다이어움' 결제 방식이다.

시는 모바일 QR코드결제 이용 확대를 위해 이번 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다이어움 모바일가맹점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한다. QR코드 간편 결제는 지역상품권 전용 앱 '착한페이 앱'을 통해 하면 된다.

이 기간 중에 다이어움 모바일가맹점에서 합산금액 3만원 이상 QR결제를 이용한 사람들은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시는 이 중 1,000명을 추첨하여 당첨자들에게 1만원의 다이어움 포인트를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음)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익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2,479억원으로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됐으며, 25~26일은 각 상임위원회, 27~2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동연 부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재원이 적체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집행부에서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민들도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